



조한근(구세군사관대)

1. 서론

욥기는 지혜문학 가운데 사회적 배경을 가장 잘 드러낸 책이다.² 특히 욥

1 본 논문은 2021년 10월 1일 제117차 한국구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그 땅에서 쫓겨난 자 (יְנֻכָּא מִן־הָאָרֶץ)에 대한 사회학적 의미(욥기 30:1-8을 중심으로)”를 재구성한 것이다.

2 본 필자는 욥기의 최종 편집 연대를 기원전 6세기 후반 이후 포로후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주장으로 델(Katharine J. Dell)은 포로후기 민족 전체가 죄의 결과로 고난의 문제가 떠올랐던 시기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에 관하여 주장한다. Katharine J. Dell, “Wisdom Literature,” Leo G. Perdue (ed), *The Blackwell Companion to the Hebrew Bible*, (Massachusetts: Backwell Publishers, 2001), 428. 헤켈(Raik Heckel)은 욥기가 기원전 5세기 ~ 3세기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기원전 6세기경에 기록된 “신명기적 이사야(Deutero-Isaiah)”보다 늦은 시기라고 주장한다. Raik Heckel,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1-2, 42 and 1 Samuel 1-4 as Intertextual Guidance for Reading,” Katharine Dell and Will Kynes (ed), *Reading Job Intertextually*, (New York and London: T&T Clark, 2013), 81-105. 그밖에 포로후기 저작에 대한 견해는 R. N. Whybray, “The Social World of the Wisdom Writings,” R. E. Clements (ed) *The World of Ancient Israel*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238-242; Samuel E. Balentine, *Hane You Considered My Servant Job? : Understanding the Biblical Archetype of Patience*, (Columbia :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2015), 3; 안근조, 「지혜의 말씀으로 읽는 욥기」, (서울: 한들

기에 나타난 고통의 문제는 당시 경제적 불균형의 심화로 인해 발생하게 된 사회문제로도 볼 수 있다.³ 더욱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는 악인들이 자신의 권력으로 가난한자들을 압제하여 경제를 독점하므로 양극화가 극심했음을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악인들의 경제 독점은 가난한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므로 사회적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⁴ 그러므로 욥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고통의 문제가 극도로 양극화된 사회계층의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악인들의 경제적 착취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⁵ 이러한 사회학적 접근은 그동안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었다.

알베르츠(Rainer Albertz)는 욥기가 기록된 시대의 사회상을 일용직 품꾼들과 종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로 인한 사회적 침식 과정이 한층 더 가속화되었던 것으로 보았다.⁶ 에이메스(Geoffrey J. Aimers)는 욥기를 사회정의(Social Justice)의 시각에서 해석하고자 했다. 그래서 욥의 부(wealth)는 오직 사회적 착취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한 사람의 경제적 독점이 다른 사람의 희생에서 비롯된 것으로 욥의 고통 역시 과거 부의 축적에 대한 징벌로 설명하고자 했다.⁷ 이와 같은 해석

출판사, 2007), 20; 조한근, “욥기에 나타난 토지 독점에 따른 경제정의의 공공성 파괴 원인 연구-욥기 24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26권 1호, (2020년 3월), 60-92.를 참고하라.

3 갓월드(Noman K. Gottwald)는 욥기가 포로기에 이스라엘의 민족적 고통을 한 개인의 고통으로 축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Noman K. Gottwald, *The Hebrew Bible: A Socio-Literary Interoduc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578-579.

4 이에 대한 본문은 욥 9:24; 12:6; 15:27; 20:19; 22:6-9; 24:2-12; 34:28; 35:9을 참조하라. Christopher B. Ansberry, “The Revealed Things Deuteronomy and the Epistemology of Job,” Jason S. DeRouchie, Jason Gile and Kenneth J. Turner (ed), *For Our Good Always: Studies on the Message and Influence of Deuteronomy in Honor of Daniel I. Block* (Indiana: Eisenbrauns, 2013), 307-325.

5 Rainer Albertz, “The Sage and Pious Wisdom in the Book of Job: The Friends’ Perspective,” John G. Gammie and Leo G. Perdue (ed), *The Sage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0), 243-248.

6 Rainer Albertz, *A History of Israelite Religion in the Old Testament Period, Volume II; From the Exile to the Maccabee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4), 496-497. 원제는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I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2).

7 Geoffrey J. Aimers, “Give the Devil His Due: The Satanic Agenda and Social Justice in the Book of

은 클라인즈(David J. A. Clines) 역시 마찬가지로 욥의 부와 명성이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 착취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한다.⁸ 물론 이와 같은 주장들은 욥의 반론을 통해 자신의 부가 사회적 착취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욥이 이에 대해 증명하고자 했다는 전제가 붙는다.⁹ 특히 욥은 자신의 마지막 무죄 맹세를 통해 과거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직접 판단할 것을 탄원한다(욥 31:35). 그래서 욥은 이 변론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신의 윤리적 실천과 율법에서 제시한 사회적 규범들의 도덕적 본질에서 찾고자 했다(욥 31:15).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불의’에 대하여 어떤 응답이나 변화도 없이 침묵한다(욥 24:1, 12).

욥기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발생한 사회적 불의를 세 가지로 진단하는데 첫째 저당권 남용(욥 22:6; 24:2-3), 둘째 불공정한 재판(욥 9:24b, 29:17) 그리고 셋째 토지 상실로 인한 농민들의 사회적 몰락(욥기 9:24a, 20:19b, 22:8) 등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은 권력자들의 과도한 저당 남용으로 생존의 수단이었던 토지를 빼앗기고(욥 24:2a), 이것에 부속된 주거지를 상실하여(욥 9:24, 20:19, 21:28) 유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욥 24:5). 특히 욥기 30장 8절에 나타난 “그 땅에서 쫓겨난 자(בְּנֵי אֶרֶץ צָרָה/니케우 민 하이라츠)”들은 당시 최극빈층으로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사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사회계층을 분류하는 데 있어 구약성서에 나타난 일반적인 용례에서조차 그 실체를 찾기 힘들다. 더욱이 본문에서 “개 중에도 둘 만하지 못한 자들”(욥 30:1)이라고

Job,” JSOT, Vol 37.1 (2012), 57-66.

8 David J. A. Clines, “Those Golden Days: Job and the Perils of Nostalgia,” David J. A. Clines (ed), *On the Way to the Postmodern: Old Testament Essays, 1967-1998*, (JSOTSup, Series 29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792-800.

9 욥은 29장과 31장에 나타난 내용과 같이 자신이 부유했을 때를 회상하며 진술한 사회 윤리적 실천을 반론의 근거로 삼고자 했다.

묘사하므로 당시 비주류 사회에서도 터부시되었던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본 필자는 욥기 30장 1~8절을 통하여 이들이 어떻게 발생하였고, 어떤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사회적 상황과 삶의 형태들이 어떠했는지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욥기 30:1~8절의 본문 분석

1) 배경

욥기 30장은 부유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던 욥에게 불행이 닥쳐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를 비웃는 자들에 대한 묘사로 시작한다(욥 30:1). 욥기는 이들에 대하여 “젊은 자들”이라고 번역한 “צַעֲרִים(체이림)”을 “מִמֶּנִּי(میم에니/나로부터)” 앞에 사용하므로 화자와 상대방을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욥 30:1a). 그런데 형용사인 “צַעֲרִי(짜이르)”는 “더 어린”이라기보다 “더 작은”을 뜻하는 것으로 사회 계급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한다.¹⁰ 그러므로 צַעֲרִים은 사회적 지위가 낮아 영향력이 미미한 존재인 “하찮은 자들” 혹은 “미천한 자들”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¹¹ 그런데 본문은 이들의 아버지를 “개와 함께(כְּלָבִי-עַם/임-칼베)”라고 표현하므로 사회 계급이 낮은 자로 멸시의 대상임을 부각시키고 있다(욥 30:1b). 또한, 이들을 “בְּנֵי-גַם־בְּנֵי(베네...감 베네.../의 아들 또한~의 아들)”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선대(先代)의 사회 계급을 그대로 이어받은

10 Magne Sæbo, “צַעֲרִי šā'ir; צַעֲרִי šā'ar; צַעֲרִי miš'ar; צַעֲרִי šē'ira,”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and Heinz-Josef Fabry (ed), *TDOT XII* (Grand Rapids, Cambridge: Eerdmans, 2003), 424-428; David J. A. Clines, *Job 21-37* (WBC 18A; Nashville, Dallas: Thomas Nelson, 2006), 996.

11 안근조, 「하나님의 지혜 초청과 욥의 깨달음」 (서울: 킹덤북스, 2012), 190-191; David J. A. Clines,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Volume VII*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1), 143.

자들임이 틀림없다(욥 30:8a).¹² 이처럼 이들은 당시 개(גַּלְגַּל/겔렙)보다 못한 존재로 평가받을 만큼 사회적으로 천한 계급에 속한 자들이었다.¹³

이들은 세 가지 사회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자신의 토지를 상실하여 거주지로부터 분리된 자들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자들은 주거지에서 쫓겨나 사회로부터 분리된 유민으로서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척박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살아가는 자들이었다(욥 24:8; 30:6). 물론 자신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경작하던 농지를 상실하여 더 이상 고향에서 살 수 없는 자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는 자들로 필요에 따라 일정한 곳에 거류하며 노동자로 살기도 했다.¹⁴ 한곳에서 정착하여 사는 원주민으로서는 타지로부터 유입된 자들을 “모르는 사람(לֹא-יָדָעוּת/로-야다티)”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욥 29:16b). 욥기는 이들을 גַּר(게르/나그네)로 구분하는데(욥 19:15) “나그네가…거리에서(גַּר…בְּחוּצוֹת/바후츠…게르)”(욥 31:32)라고 기술하므로 이들의 거주지가 상실되었음을 말해준다.

둘째, 이들은 사회 공동체로부터 배타적 차별의 대상이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고향을 떠나 타지에 거주하는 גַּר는 율법에서 사회적 보호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율법은 법정 소송에서 גַּר에 대해 원주민들과 차별 없이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규정한다(신 1:16; 24:17a; 27:19a). 물론 공적 부조(Public Charge)에서도 이들은 가난한 원주민들과 똑같이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레 19:10; 25:6; 신 14:29; 24:19~21; 26:12). 하지만 이들은 “그리고 모르는 사람의

12 하틀리(John E. Hartley)는 이들을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에 속한 자로 보았다. John E. Hartley, *The Book of Job* (Grand Rapids: Eerdmans, 1988), 397.

13 Hanneke van Loon, “But Man is Born to Trouble…; Metaphors in the Discussion on Hope and Consolation in Job 3-31,” (D. Th. diss.,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2017), 194.

14 유대와 이스라엘에서는 기원전 8세기부터 빈곤으로 토지를 상실하여 노동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고 본다. E. Lipiński, “שָׂקָר, שָׂקִיר, שֶׁקֶר, שָׂקָר; מַשְׂכָּרֵת, מַשְׂכָּרֵת, אֶשְׂכָּר, 'eškār”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and Heinz-Josef Fabry (ed), *TDOT XIV* (Grand Rapids, Cambridge: Eerdmans, 2004), 128-135;

송사”를 의미하는 “לֹא־רָעַתִּי לַיהוָה(베립 로아다티)”라는 표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외부인이라는 이유로 빈번하게 법정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욥 29:16a). 또한, 욥기는 거주할 곳이 없는 자에 대하여 ‘내가 나의 문들을 그 길로 열었다’라는 의미의 “קָלַתִּי לְאֶרֶץ אֲפָתָה(텔라타이 라홀라흐 에프타흐)”로 묘사하므로 길에서 유숙하는 자들에 대한 보호를 언급하고 있다(욥 31:32b). 그런데 אָרַח(오라흐)는 ‘여행자’ 혹은 ‘떠돌이’로 해석하기도 한다.¹⁵ 그러므로 이 구문은 ‘내가 나의 문을 떠돌이에게 열었다’로 해석할 수 있으며, 사사기 19장 15절 이하에 등장하는 레위인의 이야기를 상기하게 한다. 즉 거주지가 없는 떠돌이들은 누군가가 호의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길에서 노숙할 수밖에 없으며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다(삿 20:22-26).¹⁶ 이렇게 욥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주거지를 상실한 자들은 떠돌이들로 원주민들의 배타적 대상이었다.¹⁷

셋째, 이들은 기존 사회와의 교류와 소통이 단절된 자들이었다. 욥기 30장 1-8절에 묘사된 이들은 욥기 24장 5절에 자신의 토지를 빼앗기고 쫓겨난 자들로 “그들은 거친 땅의 들나귀 같아서”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¹⁸ 그러므로 이들은 거주지로부터 쫓겨나 기존 사회와는 동화될 수 없는 자들을 가리킨다.¹⁹

결과적으로 본문에서 제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착취의 과정을 거쳐 공동체로부터 쫓겨나 사회적 고립과 멸시를 당했던 자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땅에서 쫓겨난 자들(נִכְאָו מִן־הָאָרֶץ)”은 사회적 이해관계의 희생자들이었다. 즉 이들은 욥기가 기록될 당시 문화적으로는 기존 사회와 동화될 수

15 Francis Brown, F. S. R. Driver, and C. A. Briggs. *The New Hebrew and English Lexicon with an Appendix Containing the Biblical Aramaic*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79), 73.

16 David J. A. Clines, *Job 21-37*, 윗글, 971.

17 Edward L. Greenstein, *Job: A New Transla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9), 132.

18 John Gray, *The Book of Job*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0), 366; Marvin H. Pope, *Job* (The Anchor Bible 15; New York: Doubleday, 1982), 237.

19 F. Delitzsch, *The Book of Job* (Grand Rapids: Eerdmans, 1976), 19-25.

없었고, 경제적으로는 ‘최극빈층’을 형성했던 자들이다.

2) 본문 구조

위에서 필자가 언급했듯이 욥기 30장 1~8절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존재 가치가 매우 낮아 일반 사회와 단절되어 살아가는 자들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²⁰ 본문의 구조는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모습을 묘사한 5절을 중심으로 1~4절까지의 전반부와 6~8절까지의 후반부로 나뉜다. 서론(prologue)에 해당하는 1~2절은 혐오의 대상자들을 “צַעֲרִים”라고 소개하는데 이들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부정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קָלוּב(개)과 비교하므로 가장 열등한 사회 계급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본문에 해당하는 3~7절은 5절을 중심으로 사회적 상황(social situation)에 대해 두 가지 요소를 교차 대구(Chiasmus) 구조로 구성하고 있다. 첫째로 3절과 4절은 식량을 확보하지 못해 궁핍과 굶주림에 처해 있는 상황 설명한다. 둘째로 6절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7절은 거주지의 자연환경이 어떤지 독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을 보충적으로 기술한다.

결론(epilogue)인 8절은 ‘고립되어 떨시당하는 자들’에 대한 사회적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로 “עֲרֵב” (나발)과 둘째로 “이름 없는 자”인 “בְּלֵי־שֵׁם” (벨리 쉘) 그리고 셋째로 “그들이 쫓겨났다”로 해석되는 “נִקְוָה” (니케우)로 결론을 맺는다. 이에 대한 본문의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다.

20 Jeffrey Boss, *Human Consciousness of God in the Book of Job* (London, New York: T&T Clark, 2010), 149-150.

- A. 무가치한 존재의 소개(vv. 1-2)
- B. 기근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vv. 3-4)
- C. 공동체에서 추방 (v. 5)
- B'. 주거지의 상실로 인한 생존권 위협(vv. 6-7)
- A'. 무가치한 존재의 설명(v. 8)

본론인 3~7절은 “그들에게 기력이 사라졌다(עֲלִימוּ אֲבָרָה כֹּלָה/알레모 아바드 칼라흐)”(욥 30:2b)라는 서론의 마지막 부분이 식량과 주거에 대한 두 가지의 생존 위협을 설명한 것이다. 즉 본론은 기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원인을 열거한 것으로 5절에 강제 추방을 의미하는 יִגְרֹשׁוּ(예고라슈)를 사용하여 이들의 기근과 굶주림이 사회문제임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일반 백성들은 이들을 도둑처럼 כְּנֶבֶל/카간나브) 취급함으로 기존 사회와 접촉하여 동화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그러므로 식량과 주거 문제는 곧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백성을 추방시킨 자들과 자신의 영역을 개방하지 않으려는 배타성(exclusivity)이 만들어낸 사회적 역기능(societal dysfunction)이라고 할 수 있다.

3. 경제적 상황

1) 식량 문제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농경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식량의 자급을 극대화하려 노력했다. 특히 농업은 강우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모든 지역에서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철기 제1기 시대부터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므로 가나안의 고지대에서도 농업이 가능하

기는 했다.²¹ 하지만 강수량이 너무 적어 경작할 수 없는 지역들은 단지 우기에 초지가 형성될 때 목축만 가능했다.²² 목축은 농업의 보조수단으로 가뭄이 닥쳐 식량 공급이 어려울 때 활용되었다. 그러므로 경작이 가능한 토지는 생계의 주요 산물들을 생산하는 수단이며 가장 중요한 사회, 경제적 자원이다.²³

본문 3절과 4절에 나타난 상황은 이들이 머무는 지역이 경작지로는 부적합한 곳으로 기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토지의 경제적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식량을 수급할 방법은 오직 자연에서 채취하는 길밖에 없었다. 이에 하틀리(John E. Hartley)는 “값아 먹다”라는 의미의 “עָרַק(알라크)”를 “배회하다”로 번역하여 “궁핍과 기근으로 수척한 자들이 배회 한다(וּבְכַפְּוֹת בְּחֶסֶד וּבְכַפְּוֹת גַּלְמוֹד הָעֲרָקִים/베헤셀 우베카판 갈무드 하오레킴)(욥 30:3a)”라고 해석하였다.²⁴ 이것은 경작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이 식량을 생산하지 못해 먹을 것을 찾아 척박한 사막을 배회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수척한”으로 번역한 גַּלְמוֹד(갈무드)는 “메마른” 혹은 “불모의”로도 해석이 가능하다.²⁵ 더욱이 3b절에는 거주지에 토양의 상태를 묘

21 Israel Finkelstein, Neil Asher Silberman, *The Bible Unearthed: Archaeology's New Vision of Ancient Israel and the Origin of Its Sacred Text* (New York: Touchstone, 2002), 107-110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고지대 정착과 농업에 대한 자료는 Israel Finkelstein, *The Archaeology of the Israelite Settlement*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88), 259-269를 참고하라.

22 Marvin L. Chaney, “The Political Economy of Peasant Poverty: What the Eighth-Century Prophets Presumed but Did Not State,” *Journal of Religion & Society Supplement* 10 (2014), 34-60. 남부 레반트(south Levant)인 경우 건조 혹은 반 건조 지역으로 강수량이 약 4-8인치로 유목에 적합하다. William G. Dever, *Beyond the Texts: An Archaeological Portrait of Ancient Israel and Judah* (Atlanta: SBL Press, 2017), 65-66.

23 개역개정에서는 “파리하며”라고 번역한다. Gale A. Yee, “The Creation of Poverty in Ancient Israel,” *Journal of Religion & Society Supplement* 10 (2014), 4-19; Frank S. Frick, “Ecology, Agriculture and Patterns of Settlement,” R. E. Clements (ed), *The World of Ancient Israel*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67-93.

24 John E. Hartley, *The Book of Job*, 윗글, 396.

25 Francis Brown, F. S. R. Driver, and C. A. Briggs. 윗글, 166.

사하고 있는데 이는 “가뭄의 땅”으로 해석되는 **חֲדָרָה**(차야)와 “황무지와 폐허”로 번역할 수 있는 **שׂוּמְיָהּ וְשׂוּמָהּ**(쇼아 우메쇼아)를 용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지난밤” 혹은 “어제”를 의미하는 **אֵתְמֵשׁוּ**(에메쉬)는 은유적으로 과거의 시간을 뜻하는 “오래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²⁶ 그러므로 필자는 이 문장을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오래전 황무지와 폐허가 된 가뭄의 땅을 배회한다’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이 황무지를 배회하는 것은 식량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 폐허가 된 가뭄의 땅에서 곡물을 수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이 채취한 것들은 **מַלְוָה**(말루아흐/마로우 나물)²⁷와 **שֵׁרֶשׁ רְתִימִים**(쇼레쉬 레타밋/로템 나무들의 뿌리)뿐으로 완전한 식량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다(욥 30:4). 실제로 마로우 나물(**מַלְוָה**)은 기근이나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만 최빈곤층들에게 식량으로 사용되었다.²⁸ 물론 로템 나무의 뿌리는 식용으로는 부적격한 것으로 사막에서 기온이 낮은 저녁에 난방용 땀감으로 사용되었다.²⁹ 포프(Marvin H. Pope)는 “덥다” 혹은 “뜨거워지다”라는 동사 **הִתְחַמָּה**(하맘)의 부정사로 **לֹא־הִתְחַמָּה**(라헤맘)을 이사야서 47장 14절에 근거하여 “그들을 따듯

26 **אֵתְמֵשׁוּ**(에메쉬)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은 C. F. Keil, F. Delitzsch, *윗글*, 139-140; David J. A. Clines, *Job* 21-37, *윗글*, 945를 참조하라.

27 필자는 편의상 **מַלְוָה**를 마로우 나물로 지칭하겠다. 이 식물은 **מַלְוָה**(멜라흐/소금)에서 파생된 용어를 취한 것으로 보아 염지 식물임을 알 수 있다. Ephraim Nissan, “Considerations about Semitic Etyma in de Vaan’s Latin Etymological Dictionary: Terms for Plants Domestic Animals, Tools or Vessels,” *Philology*, vol.4. (2018), 47-52를 참조하라. 하지만 이 식물은 사막에서도 자라며, 잎은 식용으로 가능하다. Norman C. Habel, *The Book of Job* (Philadelphia: Westminster, 1985), 415; Michael Zohary, *Plants of the Bib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99.

28 마로우 나물(**מַלְוָה**)의 식용에 대한 기록은 Talmudic Babylon. Kiddushin 66a:8에서 참고하라. Rabbi Adin Even-Israel Steinsaltz, *Koren Talmud Bavli*, Tzvi Hersh Weinreb (ed), (Tractate Kiddushin 22; Jerusalem: Koren Publishers, 2015), 366.

29 Michael Zohary, *윗글*, 144; 클라인즈(David J. A. Clines)는 로템 나무 뿌리가 식품으로 부적합하므로 연료 혹은 장작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덧붙여 대사리 뿌리는 “숯 제조”의 재료라는 점을 강조한다. David J. A. Clines, *Job* 21-37, *윗글*, 999-1000.

하게 하려고”로 번역하길 제안한다(욥 30:4b).³⁰ 하지만 다른 번역에는 “מִן־הַשָּׂרָשׁ רִתְמוֹתַי (베쇼레쉬 레타밈 라헤탐)”을 “대싸리 뿌리들은 그들의 음식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한다.³¹ 이처럼 메마른 땅을 배회하는 자들은 생존을 위해 사막에서 식량을 구해야만 했으며 로뎀나무 뿌리까지 식량으로 언급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다.

특히 욥기는 “야생 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부짖겠는가!”(욥 6:5)라는 수사적 질문을 통해 굶주림에 대한 고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욥기 6장 5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יָנְהָק (이느하크)는 굶주림으로 울부짖는 야생 나귀의 상태를 기술한 것이다. 그런데 본문에서도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울부짖는 상태를 묘사한 똑같은 용례 יָנְהָק (이느하쿠)를 사용하고 있다(욥 30:7a). 욥기는 굶주림의 근본적인 원인을 가난한 자들이 경작하던 토지를 빼앗겨 추방당하므로 발생했다고 기술한다(욥 24:2a, 4). 추방당한 자들은 “사막(מִדְבָּר/미드바르)”의 “야생 나귀들(פָּרָאִים/페라임)” 같아서 부지런히 식량을 찾아야만 했다(욥 24:5a). 그리고 그들은 “광야” 혹은 “사막”으로 번역된 אֲרָבָה (아라바)에서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얻었다(욥 24:5b). 사막에서 식량을 구하는 자들의 절박한 상황은 “그들이 광야에서 노동으로 식량을 열심히 찾기 위해 나갔다”라는 내용에서도 볼 수 있다(욥 24:5a). 결과적으로 이들의 굶주림은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갖지 못해 식량을 생산할 수 없어서 발생한 경제적 사회문제였다.

30 Marvin H. Pope, *욥*, 220; 같은 견해로 Samuel Rolles Driver, George Buchanan Gray, *The Book of Job* (Edinburgh: T&T Clark, 1977), 209.를 참조하라.

31 JPS는 “מִן־הַשָּׂרָשׁ רִתְמוֹתַי לֶחֶמָם”를 영어로 “The roots of broom are their food”로 번역하였다. JPS, *Hebrew-English TANAKH; The Traditional Hebrew Text and the new JPS Translation*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9), 1701.

2) 주거 문제

기원전 13세기경 가나안에 출현한 초기 이스라엘인들은 일명 “방 네 개 짜리 가옥(four room house)”이라 불리는 집에 거주하였다.³² 초기 방 네 개 짜리 가옥은 대부분 크기와 형태가 유사하여, 사회 경제적 평등이 공동체 안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주제로 인한 정치적 변화는 평등 관계가 깨지고 관료 중심의 계급 사회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이스라엘의 경제는 ‘세습 토지’를 기반으로 한 자급자족의 농업구조에서 토지의 국유화인 ‘수속토지제’로 변화하였다.³³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농업의 특수화를 통해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켰고 이는 경제적 차이가 곧 사회 계급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관료제의 폐단은 포로후기에도 계속되어 가난한 자들이 토지와 주거지를 빼앗기므로 유민이나 노예로 전락하기도 했다.³⁴

제3 이사야서는 포로후기 유민들을 אֲנִיִּים מְרוּדִים(아니임 메루딤)라고 묘사 하는데 “유리하는 빈민”으로 해석한다(사 58:7). 특히 ‘방황하는’ 혹은 ‘유리하는’으로 해석한 מְרוּדִים(마루드)는 70인 역에서 ἀστεγους(아스테구스/지붕이 없는 자)로 번역하므로 당시 최빈곤층을 의미하는 אֲנִי(아니)의 주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³⁵ 그러므로 포로후기에 אֲנִי중에는 경제적 빈곤으로 거주지를 잃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더 가난해

32 이 가옥의 구조는 4개의 공간을 두고 있으므로 “four room house”라고 불리는데 중앙에 있는 방은 화덕이 있는 마당으로 사용되어 하늘이 뚫려있음으로 실로 3개의 방이라고 볼 수 있다. Douglas R. Clark, “Sweat and Tears: The Human Investment in Constructing a Four-Room House,” *Near Eastern Archaeology*, Vol. 66, No. 1/2, (Mar.-Jun, 2003), 34-43; Avraham Faust, Shlomo Bunimovitz, “The Four Room House: Embodying Iron Age Israelite Society,” *Near Eastern Archaeology*, Vol. 66, No. 1/2, (Mar.-Jun, 2003), 22-31; Avraham Faust, “Purity and Impurity in Iron Age Israel,” *Biblical Archaeology Review* (March, April, 2019), 36-62.

33 Benjamin W. Porter, “Assembling the Iron Age Levant: The Archaeology of Community, Politics, and Imperial Peripheries,” *J Archaeol Res* 24, (March, 2016), 376-420.

34 Matthew J. M. Coomber, “Caught in the Crossfire? Economic Injustice and Prophetic Motivation in Eighth-Century Judah,” *Biblical Interpretation* 19 (2011), 396-432.

35 John D. W. Watts, *Isaiah 34-66* (WBC 25; Waco, Texas: Word Books, 1987), 270.

져 최 극빈층으로 전락하여 거주지를 상실하게 된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에 악인들로 묘사되는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다고 지적한다(욥 20:19). 그리고 이렇게 빼앗은 가옥은 때로 중앙정부의 귀족들에게 뇌물로 바쳤다(욥 22:8). 결국, 가난한 자들은 주거지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야만 했다(욥 24:4). 그리고 그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친 광야”에서(욥 24:5a) 일정한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바위틈에서 살았다(욥 24:8).

욥기 30장 6절은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 가옥을 잃은 자들의 주거 환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이들의 거주지는 일반인들에게 매우 생소한 “침침한 골짜기에…살며”로 번역된 **בְּעֵרוּיִן נְהָלִים לְטֶבֶן**(바이루츠 네 할림 리쉐콘)라고 묘사하고 있다(욥 30:6a). 하지만 **בְּעֵרוּיִן**(바이루츠)는 ‘침침한 곳에서’ 혹은 ‘어두운 곳에서’라는 의미보다 ‘비탈에서’ 혹은 ‘경사면에서’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런데 이 용례는 와디들(wadis)을 의미하는 **נְהָלִים**(네할림)과 함께 사용하므로 ‘와디의 비탈진 경사면’에 주거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구문은 ‘와디들의 비탈에서 살기 위하여’로 재해석할 수 있다.³⁶ 물론 **עֵרוּיִן**(아루츠)는 형용사로써 ‘무서운’ 혹은 ‘가혹한’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³⁷ 이를 종합해 보면 이들의 거주지가 정상적인 가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장소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로, “흙구덩이와 바위 굴”로 번역된 **עֲפָר וְכַפְּסִים**(호레 아파르 베케 펴)은 거주지가 구덩이 형태로 되었음을 의미한다(욥 30:6b).³⁸ 그런데 **חֹר**(호

36 하틀리(Hartley)는 **בְּעֵרוּיִן**를 “in the gullies”로 번역하여 ‘와디의 마른 바닥의 험한 쪽’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John E. Hartley, *The Book of Job*, 윗글, 397. 하지만 그레이(Gray)는 **נְהָלִים בְּעֵרוּיִן**를 ‘slopes of the wadis(와디들의 비탈들)’로 번역하였다. John Gray, 윗글, 364-367을 참조하라.

37 Francis Brown, F. S. R. Driver, and C. A. Briggs. 윗글, 792a; B. Kedar-Kopfstein, “עֵרוּיִן ‘ārāš; עֵרוּיִן ‘ārīš; מַעְרָא ma‘rāšā; עֵרוּיִן ‘ārūš,”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and Heinz-Josef Fabry (ed), *TDOT XI* (Grand Rapids, Cambridge: Eerdmans, 2001) 376-378, 을 참조하라.

38 구약성서는 거주가 가능한 곳을 ‘구덩이’를 의미하는 **חֹר**보다 ‘동굴’을 뜻하는 **מַעְרָא**(메아라)를 용례

리는 다양한 종류의 구덩이를 말하며 본문에서는 ‘흙과 바위(עפר וּבַיִשׁ)’로 된 두 종류를 언급하고 있다.³⁹ 먼저 77는 ‘흙’ 혹은 ‘땅의 표면’을 의미하는 ‘עפר(아파르)’와 함께 사용하므로 땅에 구덩이를 파서 거주지를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구덩이 형태의 가옥은 토굴뿐만 아니라 바위를 파거나 갈라진 틈을 이용하여 만들기도 했다. 그래서 “קֶפֶר(케프/바위)”는 흙으로 된 구덩이와 더불어 바위 구멍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옥이 없는 자들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이 거주지가 위치한 지역은 מִיְיָ(시힘/떨기나무)과 הָרָהֳרָה(히룰/가시나무)이 자라는 곳으로 척박한 사막임을 알 수 있다(욥 30:7).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인들은 가옥을 둘러싼 농지에 보리나 밀과 같은 작물을 경작하여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밭으로 일구었다. 또한, 농지는 기호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무화과, 올리브, 포도나무 등을 재배할 수 있었으며, 소규모 목축도 가능하였다.⁴⁰ 그러므로 ‘떨기나무와 가시나무가 자라는 흙구덩이와 바위 구멍’은 이스라엘인들이 가옥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는 경작지와 대비되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흙구덩이이나 바위 구멍으로 된 주거지는 와디의 비탈진 곳에 있어 농업을 기반으로 한 이스라엘의 주거 문화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구덩이’를 의미하

로 사용한다. עֲפָרָה는 거주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창 19:30), 죽은 자를 장사하는 장지로도 사용하였다(창 23:9,19). 하지만 이스라엘 인들은 עֲפָרָה를 주 가옥으로 사용했던 것은 아니며 주로 위험에 처했을 때 피난처로 삼았다(삿 6:2; 삼상 13:6; 22:1; 왕상 18:4, 13; 19:9). 또한 동굴을 의미하는 עֲפָרָה는 도적들이 거주하는 부정적인 장소로도 기록하고 있다(렐 7:11). R. Laird Harris, Gleason L. Archer, JR. and Bruce K. Waltke,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Chicago: The Moody Bible Institute, 1980), 699-700; W. L. Reed, “Cave,” George Arthur Buttrick (ed), *IDB Volume 1* (Nashville: Abingdon, 2000), 544-545.

39 77는 전쟁 시에 매복의 장소(삼상 14:11)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다른 본문에서는 단순히 ‘구멍’을 의미하는 용례로 사용되었다. 이에 ‘구멍’을 의미하는 본문은 왕하 12:9; 겔 8:7; 나훔 2:12; 슥 14:12를 참조하라.

40 욥기는 악인들이 이런 조건을 갖춘 농지를 가난한자들에게서 강제로 빼앗았다고 기록한다(욥 24:1-12). Oded Borowski, *Daily Life in Biblical Times* (Archaeology and Biblical Studies Number 5; Atlanta: SBL, 2003), 26-30.

는 77가 주거지로 사용된 사례는 구약성서 전체에서 읍기 30장 6절이 유일하므로 당시 가장 열악한 주거 환경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사회적 상황

1) 추방

읍기는 척박한 사막의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기근과 굶주림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왜 그곳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는지 “מִן־קֵוֹי יִגְרֹשׁוּ(민-게우 예고라슈)” 구문에서 설명하고 있다(읍기 30:5a). 이들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하여 사막에 정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גָּרָשׁ(가라쉬)’의 Pual형 미완료 동사인 ‘יִגְרֹשׁוּ(예고라슈)’로 묘사하고 있다. 즉 ‘יִגְרֹשׁוּ’는 이들이 추방당하는 자들로서 외부의 압력 때문에 불가피하게 떠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더욱이 ‘중양’을 의미하는 ‘קֵוֹ(게우)’는 하나의 사회조직을 구성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⁴¹ 그러므로 이들은 한 공동체의 일원이었으나 어떤 과정을 거쳐 사회로부터 쫓겨나 사막에 정착한 자들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구문은 ‘그들이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한다’로 재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읍기는 가난한자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지와 가축들을 빼앗기고’(읍 24:2-3) 강제로 추방당하는 장면(읍 24:4a)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⁴² 또 이들은 ‘땅의 빈곤한자’를 의미하는 “עֲנִיֵי־אָרֶץ(아니에 아레츠)”로 불린 것으로 보아 마지막 생계 수단이 땅을 경작하는 농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1 מִן־קֵוֹי(민-게우)는 ‘중양으로부터’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집단으로부터’ 혹은 ‘사회로부터’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Raymond P. Scheindlin, *The Book of Job*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6.

42 Stephen J. Vicchio, *The Book of Job: A History of Interpretation and a Commentary* (Oregon: Wipf & Stock, 2020), 176-178.

다(욥 24:4b). 하지만 자신이 살던 땅을 포기하고 스스로 공동체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권력자들의 횡포 때문이었다(욥 24:4b). 결국, 욥기는 이들을 “그 땅에 쫓겨난 자들이다”라고 정의한다(욥 30:8b). 즉 מְרִירָהּ(민-하아 레츠)는 특정한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관사 ה(하)가 מְרִירָהּ의 원소유주와 용도에 대해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권력자들은⁴³ “경계표를 옮겼다”라는 묘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지였던 이 토지를 소유하기 위해 빈곤한 자들로부터 강제로 경작지를 빼앗았다(욥 24:2a).⁴⁴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묘시는 욥기 30장 8b절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데 נָכַר(나카) 동사의 Nifal형인 נִכְרָה(니케우/ 그들이 채찍질 당했다)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빈곤한 자들이 무력으로 인해 자신의 땅에서 강제로 쫓겨나야만 했다. 그러므로 이들은 더이상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었으며, מְרִירָהּ는 이들이 사막으로 쫓겨나기 전에 거주했던 ‘옛 땅’ 즉 ‘고토(古土)’를 의미한다.

2) 배타

자신의 토지에서 쫓겨난 자들은 다시 기존 사회의 일원으로 회복할 기회 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권력자들에게 빼앗긴 토지를 되찾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했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굳어진 공동체의 배타성 때문이다. 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은 악인(רָשָׁע/라샤)⁴⁵의 농지로 내려와서 곡식이나 포도

43 경계표를 옮긴 사람에 대하여 개역개정에서 “어떤 사람은”으로, NIV에서는 그들을 의미하는 “They”로, RSV에서는 사람을 의미하는 “Men”, JPS에서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People”로 각각 번역한다. 그린스테인(Edward L. Greenstein)은 경계표를 옮긴 자를 악한 자(the wicked)자로 해석하는 데 이들은 권력자를 의미한다. Edward L. Greenstein, *Job: A New Translation*, 윗글, 107; Norman C. Habel, 윗글, 353을 참조하라.

44 이스라엘은 모든 토지가 야훼의 것으로 백성들이 위임받아 경작하는 것으로 타인의 토지에 경계표를 옮기는 행위에 대하여 범죄로 보았다. 이는 율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지혜문학에서도 언급하다. 잠 22:28을 참조하라.

45 JB는 욥기 2장 6절의 악인(רָשָׁע/라샤)을 악당(the scoundrel)과 악인(the wicked) 두 가지로 번역하였다. *The Jerusalem Bible*, Alexander Jones (ed), (New York: Doubleday, 1966), 755; 그린스테인은 악인을 부

를 따가지고 가기도 했다(욥 24:6). 그런데 욥기 24장 6절에서 “악인이 남겨 둔 포도를 따며”라고 번역한 “וְכָרְם רֶשֶׁע יִלְקְטוּ”(베케렘 라샤 엘라케슈)는 때에 따라 יִלְקְטוּ(엘라케슈)를 ‘약탈한다’ 혹은 ‘탈취한다’로 해석하여 “그들이 악인의 포도를 탈취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⁴⁶ 이와 같은 용례의 사용은 자신의 토지에서 쫓겨나 굶주림에 시달리는 자들에 대해 곡식과 포도 열매를 약탈하는 자로 몰아가려는 배타적인 의도가 깔려있다.

욥기에 나타난 배타성은 엘리바스가 “그 땅은 그들에게만 주어졌다(וְהָאֲרֶזֶן נִתְּנָה לְבָרִים וְלִבְרָמָה/라헵 레바담 테나 하아레츠)”라고 설명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욥 15:19a). 이는 “분리” 혹은 “구분”을 의미하는 בָּרַב(바드)와 נָתַן(나탄/주다)의 Nifal형 동사 נִתְּנָה(닐테나/그것이 주어졌다)를 사용하여 점유했던 토지를 자신의 완전한 배타적 영역으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연결하여 “그리고 낫선 사람들이 그들 중에 지나가지 못했다(וְלֹא-עָבַר זָר בְּתוֹכָם/베로 아바르 자르 베토캄)”(욥 15:19a)라고 기술하므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사람들을 공동체 내에서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외부로부터 유입된 “낫선 사람(זָר/자르)”⁴⁷들을 부정적이고 배타적 시각에서 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계

유한자(the rich man)로 번역한다. Job: A New Translation, 윗글, 107; 악인(רֶשֶׁע/라샤)(욥 24:48)은 “불의한 자(עָלִי/아왈)”(욥 29:17)로 지칭되기도 하는데 권력자임을 암시한다. 포프(Marvin H. Pope)는 “권력자”에 대하여 “권세 있는 자”로 번역된 אִישׁ זָרֵעַ(이쉬 제로아/밭의 사람)를 가난한자들을 착취하는 지주로 해석 한다(욥 22:8), Marvin H. Pope, 윗글, 165. 뉴섬(Carol A Newsom)은 욥기 22장 8절에 나타난 אִישׁ זָרֵעַ를 “불법 토지 수탈자(land-grabber)”로 해석 한다. Carol A Newsom, “The Book of Job,” Leander E. Eck (ed), (NIB Volume IV;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500-501.

46 BDB는 “וְכָרְם רֶשֶׁע יִלְקְטוּ”(엘라케슈)를 “They despoil”로 번역한다. Francis Brown, F. S. R. Driver, and C. A. Briggs. 윗글, 545b.

47 제네이(Peter Jenei)는 “낫선 사람”으로 번역한 “זָר”을 “외국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נֹכְרִי”(노크리)와 동일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זָר”을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인 적(hostile enemies)”인 용어로 쓰일 때 사용되며 정치 사회적으로 이스라엘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는 자들로 정의한다. Péter Jenei, “Strategies of Stranger Inclusion in the Narrative Traditions of Joshua-Judges: The Case of Rahab’s Household, the Kenites and the Gibeonites,” OTE 32.1. (2019), 127-154. 하지만 반대로 클라인스는 “זָר”을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로 볼 필요가 없다고 제한한다. David J. A. Clines, Job 1-20, 윗글, 355-356. 또한 스니저스(L. A. Snijders)는 “זָר”을 이스라엘 안에서 조상들의 전승을 전통으로 따르지 않는 자들을 지칭한다고 정의한다. L. A. Snijders, “זָר/זָרֵעַ zār/zār”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를 위해 공동체에 접근하는 이들에 대해 “קָנָבִּיב (각간나브)”를 사용하여 ‘도둑과 같은’ 자들로 취급을 했다(욥 30:5).

또한, 욥기는 땅에서 쫓겨난 자들을 “נָבֵל (나발)과 בְּלִי שֵׁם (벨리 션)”로 묘사하므로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⁴⁸ 첫째, נָבֵל은 전통적으로 “미련한자”로 해석하는데 ‘무가치한 자’를 뜻하는 것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갖지 못한 ‘계급이 낮은’ 천한 자들을 지칭하기도 한다.⁴⁹ 그런데 게를레만(G. Gerleman)은 이 용례를 인간을 적대시하는 자들로 ‘인간보다 못한 자’를 뜻하는 “anti-uomo”로 해석하였다.⁵⁰ 이와 같은 표현은 결론 부분에 ‘인간보다 못한 자’를 의미하는 “נָבֵל”이 서론에서 ‘개’를 뜻하는 לֶבֶ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문학적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נָבֵל로써 לֶבֶל같은 부정적인 존재로 인간 이하의 취급 받았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이름이 없는 자”로 해석한 אִשֵּׁי-בְלִי은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의 전통성을 모두 잃어버린 자를 의미한다. 포로후기에 일부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 가운데에 ‘가문’이나 ‘원고향’의 출신지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므로 그 정체성을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스 2:59-63).⁵¹ 즉 자신의 혈통을 증명하는 것은 죽보를 통해 가능했는데 이와 같은 기록물이

Ringgren and Heinz-Josef Fabry (ed), *TDOT IV* (Grand Rapids, Cambridge: Eerdmans, 1997), 52-58, 이 용례의 사용은 욥 15:19; 19:13, 15, 17, 27을 참고하라.

48 하벨(Habel)은 땅에서 쫓겨난 자들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상실된 자로 보았다. Norman C. Habel, *욥*, 419. 잔젠(J. Gerald Janzen)은 이 의미가 사회로부터 유리된 것으로 보았다. J. Gerald Janzen, *Job* (Atlanta: John Knox Press, 1985), 205-206.

49 J. Marböck, “נָבֵל nābāl; בְּלִי n’bāl”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and Heinz-Josef Fabry (ed), *TDOT IX* (Grand Rapids, Cambridge: Eerdmans, 2001), 165.

50 G. Gerleman, “Der Nicht-Mensch, Erwägungen zur hebräischen Wurzel NBL,” *VT* 24(1974), 147-158; Wojciech Węgrzyniak, *Lo Stolto Ateo: Studio dei Salmi 14 e 53* (Lublin: Wydawnictwo KUL, 2014), 138-141.

51 Jacob M. Myers, *Ezra. Nehemiah*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65), 11-12.

보존되지 않았거나 유실 혹은 이방의 개종자일 경우 포로 전 가문의 출처를 증명할 수가 없었다. 특히 포로후기에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자들은 자신의 뿌리를 증명하므로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가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⁵² 이렇듯 이름이 없는 것은 자신의 족보나 뿌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져 잃어버린 땅을 절대 회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בְּנֵי**과 **בְּנֵי-בְנֵי**은 “~아들들”을 뜻하는 연계형 “**בְּנֵי**(베네)”를 꾸며주는 수식어로 사용되어 “인간보다 못한 자의 아들들”과 “이름 없는 자의 아들들”로 기술하므로 이들이 조상 때부터 배타적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들은 기존 공동체와 단절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에서 천하고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으며 배타의 대상으로 가장 심한 차별을 받던 계층이다.

5. 사회학적 분석

1) 극단적 양극화

욥기에 나타난 극단적 양극화는 계층 간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죽음을 묘사하는 스홀의 세계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압제자와 고통받는 자’가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한 부분에서 나타난다(욥 3:14-19).⁵³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계층 간의 사회적 관계로 얽혀있어 ‘큰 자(**גִּבּוֹר**/가돌)’는 권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지만 ‘작은 자(**קָטָן**/카톤)’는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강조하고 있다(욥 3:19a; 20:19a; 22:6; 24:9-11). 본문에서도 토지를 소유한

52 John E. Hartley, *The Book of Job*, 윗글, 19-20.

53 윗글, 97-99.

“소리치는 자”(욥 30:5)와 토지를 상실하여 “그 땅에서 쫓겨난 자”(욥 30:8b)가 대비되고 있다. 더욱이 욥기는 ‘땅에서 쫓겨난 자들’은 경제적 부를 누리며 ‘사회를 장악했던 압제자들(욥 9:24; 21:7)’과 극단적 비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압제자들은 ‘악인’으로 경제적 부를 누리며 풍요로운 삶을 살므로(욥 15:27) ‘굶주림과 기근’으로 황무지를 배회하는 자들(욥 30:3)과 대비된다. 그리고 악인들은 경제적 풍요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 또한 자손들에게 그대로 승계 되었다(욥 21:8-11). 이와 반대로 개와 같은 자로서 땅에서 쫓겨나 이름 없고, 천한 자들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자들 역시 아버지의 낮은 사회 계급을 물려받았다(욥 30:1b, 8). 그런데 욥 역시 “내가 그들의 아버들을 격멸했었다(אֲשֶׁר-מָאֲסִיתִי אֲבוֹתָם)/아셰르 마아스티 아보탐”라고 말하므로 이들에 대한 배타적 시각을 분명히 하고 있다.⁵⁴ 이에 욥의 말에는 “내가 격멸했었다”라는 의미의 완료형 동사 “מָאֲסִיתִי(마아스티)”를 사용하므로 그가 고난받기 전 부유했던 시절에도 이들을 차별적 시각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당시 사회가 극단적인 양극화로 인해 사회적 침식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2) 사회 시스템

본문은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사막에서 최빈곤층으로 살아가며 힘오와 배타의 대상이 된 사회적 실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문이 갖는 사회적 특징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율법이 제시하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규범도 작동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욥기는 당시 공동체가 율법에서 제시하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따르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당시 노동자들이 안

54 Marvin H. Pope, 율글, 219.

고 있는 고통을 묘사하는데 과도한 노동력 착취⁵⁵와 임금(wages) 체불을 언급하였다(욥 7:1, 2). 특히 임금 체불은 가난한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는 중대 범죄였다(레 19:13; 신 24:14, 15). 그리고 옹기는 악인의 토지 수탈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데(욥 24:2a)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토지가 타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였다(레 25:23; 신 19:14; 27:17). 또한, 율법은 과도하게 저당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데, 특히 가난한 자들의 옷을 저당 잡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신 24:17). 하지만 옹기는 악인이 가난한 자들의 의복을 저당 잡아 알몸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욥 24:7, 9b, 10a).

더욱이 사막에서 거주하는 자들이 기근과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식량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갔을 때 도둑과 같은 취급을 받아야만 했다(욥 30:5b). 아마도 이들은 악인으로 표현된 부유한 자들의 밭에 남은 곡식과 포도를 따기 위해서 내려갔을 것이다(욥 24:6). 하지만 율법은 분명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 경작지의 밭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며 떨어진 이삭도 줍지 못하게 했다. 또한, 포도나 올리브 열매 역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다 따지 말고 남겨 두라고 규정하고 있다(레 19:9-10; 23:22; 신 24:19-21). 이것은 가난한 자들이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공적 부조(public charge)’의 기능을 포함한 것이다.⁵⁶ 그러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은 척박한 사막에서 열악한 거주 환경과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었지만, 약탈자로 취급받아 밭에 남은 곡식이나 열매를 식량으로 얻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원인은 그 당시 사회가 율법에서 규정한 사회적 약자에 대

55 성결법전은 노예를 상대로 한 육체적 노동에 대한 착취뿐만 아니라 정신적 가혹 행위 또한 금지하고 있다. John E. Hartley, *Leviticus* (WBC Vol. 4; Dallas, Texas: Word Books, 1992), 441. 노동력 착취 금지에는 레 25:43a, 46b, 53b를 참조하라.

56 Jeffrey H. Tigay, *Deuteronomy: The Traditional Hebrew Text with the New JPS Translation Commentary* (Philadelphia and Jerusalem: The JOPS Torah Commentary, 1996), 229.

한 보호법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규범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3) 사회 계급

본문은 구약의 다른 책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사막의 구덩이에서 살아가는 특수 계층의 사회적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추방과 배타로 인해 최극빈층으로 전락한 자들의 사회계급에 대한 이해를 상태와 결과라는 도식으로 설명하고 있다.⁵⁷ 필자는 욕기에 기록된 가난한자들의 사회계층 이해를 크게 두 가지 범주에서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로, 사회적 용어로 “גֵּר(게르/나그네)”, “אֲתוּמָי(아툼/고아)”, “אֲלֻמָּנָה(알마나/과부)”, “עֶבֶד(에베드/종)” 그리고 “שִׁכְרִי(사키르/푼꿈)” 등 5가지를 들 수 있다. 둘째로, 경제적 용어로 “אֲבִיּוֹן(에비온/가난한자)”, “דָּל(달/비천한자)”,⁵⁸ 그리고 “אֲנִי(아니/빈곤한자)” 등 3가지가 있다.⁵⁹ 물론 이 두 범주는 경제적 빈곤에 처한 자들의 상황들을 반영한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본문은 ‘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의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이 두 가지 범주에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단지 이들이 ‘땅의 빈곤한자들이 자신을 숨기도록 강요 받았다(욥 24:46)’는 구절에 근거하여 경제적 ‘최빈곤층’에 해당하는 “אֲנִי(아니)”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마지막 토지를 기반으로 살아가던

57 갓월드(Norman K. Gottwald)는 군주제 이후 고대 이스라엘이 농업사회로서 토지의 소유와 이를 통해 얻은 잉여 생산물에 대한 엘리트 집단의 독점이 사회계급을 결정하는 것으로 본다. Norman K. Gottwald, “Social Class as an Analytic and Hermeneutical Category in Biblical Studie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Vol. 112, No. 1 (Spring, 1993), 3-22.

58 דָּל(달)은 절대 빈곤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결핍이 있는 자로 사회적 위치가 낮은 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사회적 용어와 경제적 용어의 궁핍에 해당하는 범주에 모두 들어간다. H. J. Fabry, “דָּל dal; דָּלָל dālāl; דָּלָה dallāh; זָלָל zālāl”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and Heinz-Josef Fabry (ed), *TDOT III* (Grand Rapids, Cambridge: Eerdmans, 1997), 208-230.

59 조한근, “욥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 나타난 경제적 양극화 원인 논쟁”, 『구약논단』 제21권 3호(2015년 9월), 38-68.

“땅의 빈곤한자(אֲנִי־הָאֲדָמָה)”가 최후에 삶의 터전인 경작지를 빼앗기고 기근과 굶주림이 있는 사막으로 쫓겨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그 땅에서 쫓겨 난자들”에 대한 사회적 위치와 삶의 환경은 다음과 같은 표를 통하여 가늠할 수 있다.

[표-1. 욥기 30:1-8의 추방과 배타의 상태와 결과]

하찮은 자들 = 개와 같은 자의 후손 ↓ 상태 제시(기력이 쇠잔하다)	사회계급 소개
마로우 나물과 로탐나무 뿌리로 식량을 삼음 ↑ 결과 제시	경제적 상황
그들이 공동체에서 쫓겨남, 그들에게 도둑처럼 외침 ↓ 결과 제시	추방과 배타
와디의 비탈진 흙구덩이와 바위 구덩이에서 삶 ↑ 상태 제시(그들이 덩불사이에 부르짖는다)	경제적 상황
인간보다 못한 자, 이름이 없는 자 = 그 땅에서 쫓겨난 자	사회계급 설명

땅에서 쫓겨난 자들은 특수 계층의 사회적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사회적 차별이 경제적 빈곤을 만들어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서론에 묘사된 ‘하찮은 자들(אֲנִי־הָאֲדָמָה)’과 결론에서 언급한 ‘이름 없는 자(אֲנִי־הָאֲדָמָה)’가 평행을 이루고 있으며, ‘개와 같은 자(אֲנִי־הָאֲדָמָה)’와 ‘인간보다 못한 자(אֲנִי־הָאֲדָמָה)’가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 수 없는 존재로 간주하여 이들에 대한 추방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배타적 차별로 인해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최빈곤층을 의미하는 אֲנִי를 용례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공적 부조의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토지에서 쫓겨나므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차별을 받

는 자들이었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도 인정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결국, 이들의 사회 계급을 의미하는 “그 땅에서 쫓겨난 자”는 토지의 수탈과정에서 생긴 희생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6. 결론

필자는 욕기 30장 1~8절을 통해 “그 땅에서 쫓겨난 자”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에 이들에 대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용어들을 살펴보고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짚어봤다. 그래서 이들의 발생 동기와 경제적 위기에 대한 배경 그리고 사회적 상황과 삶의 형태들이 어떠했는지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고찰해봤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토지를 빼앗겨 사막으로 강제 추방당하므로 생계수단이 상실된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경작지였던 토지를 상실한 것은 결국 기근과 굶주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더욱이 구덩이와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은 이들이 인간 이하의 멸시를 받는 것과 잘 맞아 떨어져 본문이 그 실상을 더욱 비참하게 묘사하도록 했다. 이에 필자는 “그 땅에서 쫓겨난 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의 극단적 빈곤은 악인이 가난한 자의 토지를 탐욕적인 방법으로 수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였다. 본문은 이들이 한 사회로부터 쫓겨났고 그들이 추방당하는 곳이 “그 땅으로부터 (מִן הָאָרֶץ)”이라고 기술한다. 욕기의 다른 본문을 살펴보면 ‘그 땅’은 정황상 농지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욕 24:2a, 10b, 11).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 농지의 상실이야말로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므로 כָּפְאוּ מִן הָאָרֶץ는 그 구문 자체가 이들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 환경을 잘 대변

하는 표현이다.

둘째, “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은 공동체로 재편입할 기회가 박탈된 자들이었다. 이는 기존 사회가 배타적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본문은 “그 도둑 같은(בְּדֹבֵד)”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접근을 막고자 했다. 더욱이 본문은 이들이 “이름 없는 자(אֲנֹנִים)”로 그 근본을 증명할 수 없음을 부각하여 17:14의 소유권과 사회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것은 혈통적 뿌리를 중요시하여 배타성을 정당화했던 시대적 요인을 반영한 것이다.

셋째, 본문은 특수 계층에 대한 경제, 사회적 차별을 담고 있다. 이것은 율법과 사회규범이 “그 땅에서 쫓겨난 자들”에게는 생존권을 보장해 주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욕기 29장과 31장은 욕이 행한 자선에 율법이 명시한 사회적 약자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두 본문에는 욕이 언급한 사회적 약자의 목록에 ‘땅에서 쫓겨나 사막에서 빈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욕은 이들을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 차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욕은 특수 계층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율법의 범주를 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이들이 기근과 굶주림에 놓여 있을 때 공적 부조와 같은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 침식이 심각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다른 본문에는 사막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악인의 농지에서 곡식과 포도 열매를 따 갔다고 기술하고 있다(욕 24:6). 이는 히브리 법전이 보장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진 생존권이자 일종의 사회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본문은 이들의 행위를 약탈자로 규정하고 부정적인 존재로 기술하므로 공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굶주림으로 기존 사회에 접근하려 했을 때 이들을 도둑으로 취급하여 소리 질러 쫓아냈던 것은 히브리인의 법전이 사회 윤리를 실현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이다. 결론

으로 본문에 나타난 “그 땅에서 쫓겨난 자들”에 대한 기술들은 사회적 차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7. 참고문헌

- 안근조, 「지혜의 말씀으로 읽는 욥기」(서울: 한들출판사, 2007).
- _____, 「하나님의 지혜 초청과 욥의 깨달음」(서울: 킹덤북스, 2012).
- 조한근, “욥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 나타난 경제적 양극화 원인 논쟁”, 「구약논단」 제21권 3호(2015년 9월), 38-68.
- _____, “욥기에 나타난 토지 독점에 따른 경제정의의 공공성 파괴 원인 연구-욥기 24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26권 1호(2020년 3월), 60-92.
- Aimers Geoffrey J., “Give the Devil His Due: The Satanic Agenda and Social Justice in the Book of Job,” *JSOT*, Vol 37,1 (2012), 57-66.
- Albertz Rainer, “The Sage and Pious Wisdom in the Book of Job: The Friends’ Perspective,” John G. Gammie and Leo G. Perdue (ed), *The Sage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0), 243-248.
- _____, *A History of Israelite Religion in the Old Testament Period, Volume II; From the Exile to the Maccabee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4). 원제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I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2).
- Ansberry Christopher B., “The Revealed Things Deuteronomy and the Epistemology of Job,” Jason S. DeRouchie, Jason Gile and Kenneth J. Turner (ed), *For Our Good Always: Studies on the Message and Influence of Deuteronomy in Honor of Daniel I. Block* (Indiana: Eisenbrauns, 2013), 307-325.
- Balentine Samuel E., *Hane You Considered My Servant Job? : Understanding the Biblical Archetype of Patience*,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2015).

_____, *Job* (Macon: Smyth & Helwys, 2006).

Brown Francis, Driver F. S. R., and Briggs C. A., *The New Hebrew and English Lexicon with an Appendix Containing the Biblical Aramaic*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79).

Borowski Oded, *Daily Life in Biblical Times* (Archaeology and Biblical Studies Number 5; Atlanta: SBL, 2003).

Boss Jeffrey, *Human Consciousness of God in the Book of Job* (London, New York: T&T Clark, 2010).

Chaney Marvin L., "The Political Economy of Peasant Poverty: What the Eighth-Century Prophets Presumed but Did Not State," *Journal of Religion & Society Supplement* 10 (2014), 34-60.

Clark Douglas R., "Sweat and Tears: The Human Investment in Constructing a Four-Room House," *Near Eastern Archaeology*, Vol. 66, No.1/2, (Mar.-Jun, 2003), 34-43.

Clines David J. A., "Those Golden Days: Job and the Perils of Nostalgia," David J. A. Clines (ed), *On the Way to the Postmodern: Old Testament Essays, 1967-1998*, (JSOTSup, Series 29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792-800.

_____, *Job 21-37* (WBC 18A; Nashville, Dallas: Thomas Nelson, 2006).

_____,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Volume VII*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1).

Coomber Matthew J. M., "Caught in the Crossfire? Economic Injustice and Prophetic Motivation in Eighth-Century Judah," *Biblical Interpretation* 19 (2011), 396-432.

Delitzsch F., *The Book of Job* (Grand Rapids: Eerdmans, 1976).

Dell Katharine J., "Wisdom Literature," Leo G. Perdue (ed), *The Blackwell Companion to the Hebrew Bible*, (Massachusetts: Backwell Publishers, 2001), 428.

Dever William G., *Beyond the Texts: An Archaeological Portrait of Ancient Israel and Judah* (Atlanta: SBL Press, 2017).

www.kci.go.kr

- Driver Samuel Rolles, George Buchanan Gray, *The Book of Job* (Edinburgh: T&T Clark, 1977).
- Fabry H. J., “דַּלִּי dal; דְּלָלָה dlālā; דַּלָּה dallāh; זָלָל zālāl”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and Heinz-Josef Fabry (ed), *TDOT III* (Grand Rapids, Cambridge: Eerdmans, 1997), 208-230.
- Faust Avraham, Bunimovitz Shlomo, “The Four Room House: Embodying Iron Age Israelite Society,” *Near Eastern Archaeology*, Vol. 66, No. 1/2, (Mar.-Jun, 2003), 22-31.
- _____, “Purity and Impurity in Iron Age Israel,” *Biblical Archaeology Review* (March, April, 2019), 36-62.
- Finkelstein Israel, Neil Asher Silberman, *The Bible Unearthed: Archaeology’s New Vision of Ancient Israel and the Origin of Its Sacred Text* (New York: Touchstone, 2002).
- _____, *The Archaeology of the Israelite Settlement*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88).
- Frick Frank S., “Ecology, Agriculture and Patterns of Settlement,” R. E. Clements (ed), *The World of Ancient Israel*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67-93.
- Gerleman G., “Der Nicht-Mensch. Erwägungen zur hebräischen Wurzel NBL,” *VT* 24(1974), 147-158.
- Gottwald Noman K., *The Hebrew Bible: A Socio-Literary Interoduc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 _____, “Social Class as an Analytic and Hermeneutical Category in Biblical Studie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Vol. 112, No. 1 (Spring, 1993), 3-22.
- Gray John, *The Book of Job*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0).
- Greenstein Edward L., *Job: A New Transla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9).
- Habel Norman C., *The Book of Job* (Philadelphia: Westminster, 1985).

- Hartley John E., *The Book of Job* (Grand Rapids: Eerdmans, 1988).
- _____, *Leviticus* (WBC 4; Dallas, Texas: Word Books, 1992).
- Heck Raik,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1-2, 42 and 1 Samuel 1-4 as Intertextual Guidance for Reading,” Katharine Dell and Will Kynes (ed), *Reading Job Intertextually*, (New York and London: T&T Clark, 2013), 81-105.
- Janzen J. Gerald, *Job* (Atlanta: John Knox Press, 1985).
- Jenel Péter, “Strategies of Stranger Inclusion in the Narrative Traditions of Joshua-Judges: The Case of Rahab’s Household, the Kenites and the Gibeonites,” *OTE* 32.1. (2019), 127-154.
- Jones Alexander, *The Jerusalem Bible* (New York: Doubleday, 1966).
- JPS, *Hebrew-English TANAKH; The Traditional Hebrew Text and the new JPS Translation*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9).
- Kedar-Kopfstein B., “עָרַץ ‘āraṣ; עָרִיץ ‘ārīṣ; מַעְרָצָה ma‘arāṣā; עָרוּץ ‘ārūs,”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and Heinz-Josef Fabry (ed), *TDOT XI* (Grand Rapids, Cambridge: Eerdmans, 2001)376-378.
- Kwon Jiseong James, “Divergence of the Book of Job from Deuteronomic/Priestly Torah: Intertextual Reading Between Job and Torah,” *Scandinavian Journal of the Old Testament*, Vol. 32, No. 1, (2018), 49-71.
- Laird Harris R., Gleason L. Archer, JR. and Bruce K. Waltke,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Chicago: The Moody Bible Institute, 1980).
- Lipiński E., “שָׂקָר šāqār; שָׂקִיר šāqīr; שֶׁקֶר šeqer; שָׂקָר šāqār; מַשְׁכֹּרֶת maškōret; אֲשֶׁקֶר (‘eškār”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and Heinz-Josef Fabry (ed), *TDOT XIV* (Grand Rapids, Cambridge: Eerdmans, 2004), 128-135.
- Loon Hanneke van, “But Man is Born to Trouble...; Metaphors in the Discussion on Hope and Consolation in Job 3-31,” (D. Th. diss.,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2017), 194.
- Marböck J., “נָבַל nābāl; נִבְּלָה nēbāl”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and Heinz-Josef Fabry (ed), *TDOT IX* (Grand Rapids, Cambridge: Eerdmans, 2001),

Węgrzyniak Wojciech, *Lo Stolto Ateo: Studio dei Salmi 14 e 53* (Lublin: Wydawnictwo KUL, 2014).

Whybray R. N., "The Social World of the Wisdom Writings," R. E. Clements (ed) *The World of Ancient Israel*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238-242.

Yee Gale A., "The Creation of Poverty in Ancient Israel," *Journal of Religion & Society Supplement* 10 (2014), 4-19;

Zohary Michael, *Plants of the Bib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검색어

미천한 계급

추방

배타

최빈곤층

생존권

**Sociological Analysis of
“Those Who Were Driven out of the Land(נִכְּאֵי מִן־הָאָרֶץ)”:**

Centered on Job 30:1~8

Han-Geun Cho

The Salvation Army Graduate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those who were driven out of the land” through a sociological analysis on Job 30:1~8. They were stripped of the land they had cultivated, suffering from famine and starvation. Moreover, the conditions of their dwelling places, such as pits, describe their situation as subhuman, making the text portray their miserable reality. Verse 8, “those who were driven out of the land,” can be defined as follows:

First, the extreme poverty of “those who were driven out of the land” was the result of the greed of the wicked who took the land of the poor.

www.kci.go.kr

The text states that the poor were expelled from their society and “from the land(זָרְאוּ מִן־הָאָרֶץ).” Therefore, the phrase “נִקְאוּ מִן־הָאָרֶץ(nikeu min-ha'arez)” can be seen as an expression that represents their socio-economic conditions.

Second, “those who were driven out of the land” were people who were deprived of opportunities to reintegrate into the community. This means that the existing society had exclusive tendencies. This background also reflects the context of the times that justified exclusivity by emphasizing ancestral roots.

Third, the text contains economic and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special classes, suggesting that their social norms did not uphold the rights of the poor. Therefore, when “those who were driven out of the earth” tried to obtain access to the society especially due to hunger, people called them thieves and shouted them out. This means that the Hebrew code did not work at all to realize the social ethics. Therefore, the descriptions of “those who were driven out of the land” in the text signal to the aspects of social discrimination.

Keywords

Low class

Banishment

Exclusive

Poorest

The right to live

- 투고일: 2021년 10월 18일
- 심사일: 2021년 11월 13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11월 20일

www.kci.go.kr